

---

# 2021년 제39호 방송심의보고서

---

2021. 9. 24. ~ 9. 30.



한국정책방송원  
KTV 국민방송

프로그램	국민리포트		
방송일자	2021. 9. 24.	시청률	0.000

## 【총 평】

코로나19에 대한 안전불감증을 점검해 경각심을 높인 '대형유통매장 '출입명부 작성' 허점 보여' 리포트의 기획성과 '자연친화적 예술놀이'로 환경 관심 키워 등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운 소재가 돋보였다. 특히 '출입명부 작성 지켜야'는 출입명부 작성과 안심콜 확인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대형 유통매장의 실태를 고발한 점이 돋보였다. 현장 고발을 통한 문제제기가 환경감시기능 역할로 캠페인 효과를 높였다. 이 밖에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새벽시장, 생태경관을 살린 친환경 수변 산책로, 환경보호 동화로 어린이 대상 친환경 교육을 하는 다양한 스토리가 주제를 생동감있게 살렸다.

## 【구성 및 내용】

- 대형유통매장 '출입명부 작성' 허점 보여  
대형유통매장 출입을 위한 출입명부 작성이 의무화가 시행 중이다. 매장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체온 확인과 QR코드나 안심콜을 이용한 출입명부 등록이 필수인데, 일부 고객들이 지키지 않거나, 해당 매장에서 고객의 움직임에 따른 출입명부 작성이 원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출입명부 미작성시 감염병 역학조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 되며, 어려움을 겪고 있어 모두의 참여가 필요하다.
- 일산 호수공원 주말 '농산물 새벽장터' 인기  
일산 호수공원에서는 주말 새벽 농산물 새벽장터가 열린다. 토요일, 일요일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열리는데 친환경 농산물, 선인장이나 다육식물 등이 마련된다. 고양지역 33개 농가에서 준비한 농산물을 구입하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방문한다. 농산물뿐만 아니라 두부, 반찬 등 그 종류도 다양하다. 새벽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농가에 판로를 제공하며, 시민에게 도움을 주는 상생 장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이런 산책로가 있어?" 50년 만에 완성된 '송파둘레길'  
70년대 한강종합개발로 통행이 제한되었던 길이 송파둘레길, 일명 '탄천길'로 탄생했다. 50년 만에 열린 탄천길은 야생동물의 편안한 서식을 위해 야간 입장이 제한된 친환경 생태도보길이다. 송파 둘레길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둘레길을 관리하고 있으며, 둘레길 지킴이가 생태교관식물 제거, 쓰레기 줍기 등 자연을 보호하며 환경정화에 앞장서고 있다.
- '자연친화적 예술놀이'로 환경 관심 키워  
영산강 문화관에서 영산강에 대한 이해를 돕고 다양한 환경프로그램을 체험하는 교육이 있었다. 특히, 클래식 음악에 맞춰 추상화도 그려보고, 강물 청소부 게임, 쓰레기 분리배출 체험을 통한 다양한 교육이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어린이들은 환경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문화예술 체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개선시키는 시간이 되었다.

프로그램	특특 사이다경제		
방송일자	2021. 9. 24.	시청률	0.000

### 【총 평】

‘경제&이슈’에서는 먹거리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국가식량계획 추진 방안에 전반적으로 짚어보았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국가식량 계획은 단순히 생산, 공급뿐만 아니라 환경과 건강 등 먹거리 문제들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계획이다. 특히, 안정적 먹거리 공급체계구축 방안, 친환경 먹거리 생산 소비 방안, 소득 계층별 영양과 건강의 불균형이 야기되는 먹거리 기본권에 관한 내용이다.

‘S&NEWS’에서는 #리볼빙 주의, #우편함에 마약이?, #식용 곤충에 대해 전했는데, 카드사의 리볼빙 서비스는 할부와 전혀 다른 개념으로 일부 사용자들이 잘못 알고 신청해 막대한 이자를 감당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우물이 가득 쌓인 우편함이 마약배송지 등 범죄에 이용되고 있어 항상 깨끗하게 비워둘 것을 권장했다. 이 밖에 황충으로 불리는 풀무치를 우리나라 10번째 식용곤충으로 인정했다. 메뚜기보다 두 배 크고 사육 기간은 절반으로 경제성이 좋은 곤충으로 그 활용도를 모색해 보았다.

### 【구성 및 내용】

우리나라 건국 이래 처음으로 국가차원에서 국가식량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했다. 10년 단위로 계획을 세워서 식량 생산, 유통, 공급, 환경, 건강, 먹거리 권리 등 식량에 관한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계획이다. 코로나19 사태를 경험하면서 식량 공급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고, 육류로 인한 탄소발생을 감소하여 지속가능한 식량 생산과 소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특히 먹거리 권리 차원에서 소득의 격차로 인한 먹거리 불평등 발생을 국가 차원에서 해결하려는 의지로 식량 기본 계획이 수립되었다. 식량 비축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3대 주식인 쌀, 밀, 콩의 비축량을 늘리고, 물류의 문제를 고려하여 자급률도 높이기로 했다. 공공임대용 농지도 비축, 지자체의 푸드플랜(지자체 생산-소비)를 수립한다. 또 지속가능 농업을 구축한다.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배출을 감소하고, 경축 순환 농업(축산에서 자연 비료를 얻어 사용하여 농작), 기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서 기후에 맞는 농작물을 재배,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한다. 영양섭취 부족이 낮은 비율이 소득이 낮은 층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소득 수준별 유병률 역시 소득이 낮은 층에서 더 높다. 즉, 전체적 곡물 공급은 양호하지만 균형있는 영양가 섭취는 동등하지 않다. 그러므로 기본권인 먹거리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다른 경제 이슈로 개인 창업과 관련 30대 미만의 개인 창업 증가율이 높아졌다. 취업에 사활을 걸던 30대가 반드시 취업을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 특히 미국은 엔젤투자자금을 통해 지역사회내의 부자들이 청년 창업자들에게 아낌없이 투자를 하는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한다.

프로그램	산이 좋아 물이 좋아		
방송일자	2021. 9. 24.	시청률	0.000

### 【총 평】

‘가야를 잇다! 고령 대가야시장 사람들 - 경북 고령’편에서는 대가야시장 농촌 5일장을 찾아 가업을 이어온 대장간, 건어물 가게, 생선가게, 국밥집 주인 등 시장사람들의 생활상을 담았다. 새벽부터 서로 도와가며 오일장을 준비하는 재래시장 상인들의 애환과 훈훈한 인심을 담은 휴먼 스토리가 흡인력을 높였다.

3대째 이어온 대장간 주인은 전통에 대한 소명감과 자부심이 엿보였고 “포기하지 마라”는 부인의 내조도 한 몫을 했다. 이 밖에 23년째 건어물 가게를 가업으로 이끈 아들, 시어머니로부터 매섭게 배운 요리솜씨로 76년간 음식 맛을 이어가는 수구레국밥집 여사장님의 똑심도 대가야시장을 존속시키는 요체임을 잘 부각시켰다.

### 【구성 및 내용】

경상북도 고령은 영남의 젖줄로 불리는 낙동강과 가야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6세기 대 가야의 도읍지로 깊은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고령 대가야시장은 매월 4일과 9일에 열리는 오일장으로 상인과 물건을 사려는 사람들, 그리고 물건들이 가득하다.

전통시장 상인들의 애환과 인심을 담담하게 그려낸 기획이 돋보였다.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과 활력이 넘치는 시장의 모습을 생동감 있게 구성했다. 새벽부터 서로 도와가며 오일장을 준비하는 상인들의 모습과 전통을 고수하며 가업을 이어가는 사연을 통해 상인들의 애환을 정감있게 담아낸 구성이 몰입감을 높였다.

오일장 당일 새벽부터 서로 도와가며 장을 준비하고 있는 상인들의 모습을 담아냈다. 고령오일장 내 대장간은 할아버지 때부터 3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다. 철기시대 대가야의 문화를 잇는 3대째 대장간을 운영하고 있는 대장간으로 가업을 이어가기 위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전통방식을 고수하며 대장간을 운영하게 된 사연을 담담하게 그려냈다.

고령 대가야시장에서 유일하게 남은 대장간에서는 할아버지, 혹은 아버지가 사용한 장비들이 수십 년 이상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20년 이상 대장간을 지키고 있는 ○○○ 씨는 아버지의 손때가 묻은 장비들, 몸에 익은 구조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고령오일장에는 대장간 이외에도 대를 이어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상인들이 많다. ○○○ 씨가 아버지를 이어 23년째 운영중인 건어물 가게는 추석을 앞두고 분주하다. 특히 고령 오일장은 제수용품이 유명한데 단골들의 발길이 해마다 이어진다. ○○○ 씨는 3대째 생선가게를 이어오고 있다. 일을 도와주다보니 자연스레 대를 잇게 되었다. ○○○ 씨가 운영하는 수구레 국밥집은 시어머니로부터 이어져 어느덧 76년이 지났다. 서민들의 배를 채워주던 국밥은 이제 고령오일장의 대표 메뉴로 자리 잡았다.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정이 살아있는 곳, 저마다의 사연으로 이곳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에 고령 대가야시장은 오늘도 뜨겁게 살아 숨 쉬고 있다.

프로그램	살어리랏다		
방송일자	2021. 9. 25.	시청률	0.027

### 【총 평】

‘도망가자 나의 작은 정원으로’편에서는 속초에서 귀촌 생활을 통해 가든 디자이너로 살아가는 부부의 삶과 철학을 엿볼 수 있었다. 아내는 영국에서 유학하며 전공한 가든 디자인으로 정원을 꾸며내는 것이어서 우리가 흔히 보는 비싼 정원수와 잔디, 정자로 꾸미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식물과 풀꽃들로 정원을 디자인하고 있다. 산과 바다가 있고 기후가 온화해서 식물을 키우기 좋은 곳으로 속초를 선택해 귀촌한 정원 디자이너의 일상이 잔잔하고 진솔하게 잘 구성되었다.

특히 주인공이 추구하는 정원의 개념과 철학이 잘 드러났으며 보는 정원이기보다 사람의 생활과 함께 하는 정원이라는 원칙과 철학이 시종일관 잘 그려졌다. 도시에서는 경험할 수밖에 없는 삶의 소음과 불필요한 요소들은 도시를 벗어나면 자연스럽게 벗어날 수 있다는 메시지가 전달되었다.

### 【구성 및 내용】

강원도 설악산 국립공원 입구인 속초 중도문길 마을에는 단정하고 아름다운 정원으로 손님을 맞이하는 부부가 있다. 아내는 영국으로 유학을 가서 7년간 조경학을 공부해서 가든 디자이너로 돌아와 속초에 자리를 잡고 150년 된 오래된 한옥을 구입하여 1년간 직접 수리를 했다. 목공일 손재주가 좋은 남편이 집의 구석구석을 손보고 가구며 소품까지도 제작했다. 남편은 교수였는데 지금은 아내와 정원을 가꾸고 산다.

정원설계사란 주거지 외의 모든 것을 디자인하는 사람으로 건축의 설계와 함께 디자인을 시작한다. 정원을 가꾸는 데에는 지나친 간섭을 피하고 자연이 하는 대로 두기도 하여 정성을 들여 가꾸는 일과의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정원을 디자인할 때 예쁘게 꾸미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고 얼마나 정원생활을 잘할 수 있게 되는가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직접 정원을 가꾸며 생물들과 만나기도 하며, 자연을 배워나가기를 원한다는 뜻이다. 아내에게 정원은 생활의 일부이며 힘겨우면 힘겨운 대로, 즐거우면 즐거운 대로, 그냥 일상이다. 힘들 때면 정원으로 나가 식물들이 다 괜찮다고 도닥여주는 위로를 받는다.

자신만의 정원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영감과 지혜를 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6년 전부터는 ‘정원학교’를 운영하며, 정원이야기를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정원 관련 책도 여러 권 출간했다. 정원디자인을 의뢰해오면 출장을 가서 직접 상담도 한다. 농가민박을 하는 귀농 부부가 수입도 창출하고 아이들 놀이터도 친환경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상담을 해준다. 아내가 집에 없을 때엔 남편은 혼자서 놀이터 목공실에서 소품 제작을 하며 즐긴다. 정원 가꾸기와 디자인 일에 지치면 걸어서 속초 바닷가를 산책할 수도 있는 아름다운 곳에 살고 있는 부부는 더없이 행복하다고 말한다. 소음이 없고 빛이 없는 밤다운 밤에는 앞으로의 작업도 계획하고 느슨한 행복도 즐긴다.

프로그램	여러분의 북마크		
방송일자	2021. 9. 26.	시청률	0.004

## 【총 평】

문재인 대통령이 9월21일 제76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밝힌 남북종전 선언의 배경과 의미, 북미 양국의 자세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특히 문대통령이 종전선언을 다시 제안한 배경에 대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차원에서 모멘텀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반도 종전선언 성사를 위해서는 북한과 미국이 대결 상태를 벗어나 통큰 결단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돋보였다.

‘궁금한 한반도 이슈텔링’은 3년 전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능라도경기장 연설과 백두산 천지 방문을 소재로 당시 북한 주민들의 반응과 이를 바탕으로 남북협력과 남북공생 방안을 모색해보았다. 평양 능라도경기장 연설, 백두산 방문 등 남북정상의 역사적 순간들을 보여줘 기억을 생생하게 소환한 구성이 뛰어났다.

## 【구성 및 내용】

지난 9월 21일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제76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종전선언이란 전쟁을 종료시켜 상호적대 관계를 해소시키고자 하는 교전 당사국 간의 공동 의사를 표명하는 것으로 국제사회에 선언 혹은 협정 형태로 표명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뉴욕에서 개최된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 미중 4자 종전선언을 제안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종전선언을 현실화 하는 것이 간단하지 않은데 그 이유는 과거 휴전선언에서 그 배경을 찾을 수 있다. 정전협정은 1951년 국제 연합군과 공산국의 비밀 접촉을 시작으로 잠시 전쟁을 중지한다는 내용의 정전협정을 체결한 것에서 비롯되었으나 정작 당시 정전협정 체결 서명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한 북한, 중국, 미국만이 참여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남북이 단독 결정할 수 없는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 협정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9월19일 평양의 체조 경기장에서 한국 대통령 최초로 북한주민들을 상대로 연설을 했다.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마친 남북 정상은 백두산을 방문해 백두산 천지의 맑은 물과 제주의 물을 교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천지의 맑은 물을 떠담는 감동적인 모습을 당시 북한 청년이었던 출연자는 우리와 다른 소감을 말했다. 북한 주민들은 먹고 살기 바빠서 감동적으로 느낄 여유가 없었고, 실질적인 경제 정책을 바꿨다고 한다.

북한 주민들의 속마음을 들여보는 구성이 남북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었는데, 북한 주민들이 개성공단처럼 남북협력으로 서로 잘 살 수 있는 공생 관계를 원한다는 메시지가 전달됐다. 이 밖에 “종전선언을 계기로 평화의 한반도를 이뤄야 한다.”며 “한반도 평화를 만들 수 있는 건 우리 자신”임을 일깨운 마무리 멘트가 공감도를 높였다.

프로그램	라떼의 정석, 끈대할매라구요?		
방송일자	2021. 9. 26.	시청률	0.003

### 【총 평】

‘살림하는 남자’와 ‘딩크족(Dink- Double Income, No Kids)’을 통해 일하는 아내 대신 남편이 집에서 살림하는 것에 대한 끈대할매의 생각과 아이 없이 부부가 행복하게 살수 있다는 딩크족의 생각을 들어보았다. ‘살림하는 남자’는 남녀의 자리가 무엇인지, 이에 대한 견해 차이는 세대 차이에서 오는 것일까 하는 질문을 던져보았다. ‘딩크족’은 아이가 꼭 있어야하는지 하는 문제를 다루었다. 아이를 갖는 것이 개인적이거나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국익에 관련되는 사회문제가 되어버린 것임을 알아야 하는 현상이 되었다.

끈대할머니의 명확한 해결책이라기보다는 라떼경험을 나누며 선배로서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현실적으로 다가와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가정에서 남녀의 위치가 바뀐 세태의 변화를 알 수 있었고, 그 변화를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당사자들의 자세도 변했음을 알게 해주었다.

### 【구성 및 내용】

끈대할매와 수발러가 ‘살림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끈대할매는 남자가 살림하고 여자가 일하러 나가는 것은 반대라며 남녀의 자리에 대한 확고한 견해를 표현했다. 수발러는 ‘살림남’은 ‘살림만 하는 남자’, ‘요섹남’은 ‘요리 잘하는 섹시한 남자’라고 쉽게 답을 맞춘 끈대할매가 ‘뇌섹남’에는 답을 못하자 수발러는 ‘뇌가 섹시한 남자’라 설명을 했다. 최근 일하는 여성이 늘어나고 있다. 아내가 밖에 나가 돈을 벌고 남편이 집에서 살림하는 사연을 통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업군을 만나고 그 가정을 이해하며 끈대할매의 공감과 토크가 돋보였다. 일 하는 아내를 위해 살림이 즐겁지만 고민이 있다면 한 달 용돈이 20만원이라고 너스레를 떠는 유쾌한 에피소드가 흥미를 끌었다. 아내의 수입이 더 많으므로 남자가 살림하는 것이 맞다는 신세대의 합리적인 발상이 기존 전통적인 선입견을 재고할 수 있는 소구력이 되는 구성이었다.

끈대할매는 2세 계획없이 부부가 알콩달콩 살고 싶다는 출연자의 말에 땅이 꺼지듯 한숨을 내쉰다. 결혼한 부부가 둘이 벌어서 아이는 낳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딩크족이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부부가 행복하기 위해서 아내에게 충성해야 하는 게 기본이다. 끈대할매는 부부는 아이를 낳고 알콩달콩 살아야 하며, 인구 감소를 걱정하며 아이를 낳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며 요즘 세대들의 미래가 어둡다고 심란해했다. 신세대는 자신들의 행복이 우선이라는 내용으로 각자의 생각을 펼쳐나갔다. 아내의 입장을 이해하고 대변하는 신세대 남편의 입장이 천연덕스럽게 전달되었고 딩크족을 부러워하는 신세대의 문화와 이를 안타까워하는 끈대할매의 입장이 전개되어 흥미를 살렸다. 가족의 개념과 딩크족의 이해에 대해 각자의 기준이 애매했을 때 수발러의 개입으로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설정이 좋았다.

프로그램	PD리포트 이슈 본(本)		
방송일자	2021. 9. 26.	시청률	0.097

### 【총 평】

‘지역균형뉴딜, 어디까지 왔나’편에서는 출범 1년째가 되는 지역균형 뉴딜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우리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지방 도시의 사례들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및 방안을 살펴보았다. 특히 지역중심 사업 발굴을 넘어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의 필요성과 스마트하고 안전한 삶을 위한 노력이 강조되었다.

시민 주도로 석탄화력발전소에서 태양광발전사업으로 변경한 충남 당진의 현황과 그린 뉴딜의 사업을 소개한 구성이 돋보였다. 또 지능형 교통체계란 전자정보로 다방면의 안전설비를 제공하는 스마트시티로 변모를 꾀하는 경기도 안양시의 모습은 실제 생활과 직접 연관되어서 공감도가 높았다.

### 【구성 및 내용】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은 제76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우리 정부가 추구해 온 국가균형발전의 꿈은 지역 균형 뉴딜을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말씀했다. 지역 균형 뉴딜 정책은 지역과 지자체 그리고 지역민이 주체가 돼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자는 취지의 정책으로 출범 1주년을 맞이했다.

해안선을 따라 석탄화력발전소 10기가 자리 잡고 있는 충남 당진은 지난 20년 간 수도권의 전력공급을 책임져 왔던 곳이다. 따라서 대기오염이 심각해 온실가스 배출량 전국 1위로 꼽혔던 지역이다. 마침내 석탄화력발전소 대신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해, 국가전력수급계획을 시민의 힘으로 바꾼 최초의 사례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석탄발전소에서 나오는 온배수를 통해서 새우양식 사업을 시도하는 등 에너지 절감 첨단 ICT 기술 등 스마트 친환경 양식 기법을 개발했다. 경기도 안양시에는 6천여 개의 CCTV가 설치돼 있어 방법뿐만 아니라 교통, 재난, 재해 등 시민들의 안전을 24시간 내내 지켜주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제는 간단한 CCTV 모니터링이 아니라 CCTV로 일차적인 사건 사고 해결에 대한 관련 자료를 분석해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한다거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안양시는 ‘스마트 도시 인증’을 받았다. 이외에 스마트 시티 국가 지정 도시로 선정된 부산의 ‘에코 델타 시티’는 돌봄과 배송 등을 전담한 로봇이 폭넓게 활동하고 있으며, 세종은 자율주행 셔틀 등 첨단교통 서비스를 통해 자가용 없이도 편리한 이동이 보장되는 도시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균형발전의 길이 순탄치 않다. 최근 5년 간 수도권 인구 구성비가 전체 인구의 50% 이상을 차지하면서 수도권의 인구 쏠림 현상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혔다.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청년층은 20대 초반 대학 교육을 위해서, 그리고 20대 중반 이후에는 직장을 찾아서 이주를 하게 된다. ‘국가균형발전 위원회’는 이런 상황들을 시스템적으로 개선해 지역에 청년들이 머물 수 있는 정책을 만들 계획이다.